



지난 18일 여수국가산단 일부 업체와 화물연대간 운송료 인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19일 오후 여수산단내 한 공장에서 제품이 출하되는 등 여수지역 물류 수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 ‘3PL 물류기업’ 육성 빨라질 듯

(화주-운송사-창고업자 연결, 모든 절차 대행)

## 내대통령 물류 시스템 재검토 방침 따라

## 화주 끌어들이 각종 지원·인센티브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에 따라 물류 시스템 재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17일 합동 담화에서 내놓았던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도입 등은 화물차 수급을 조절하고 경유가 인상을 보전해주는 수단일 수 있어도 물류 체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은 아니다.

정부와 업계는 단단계 앞선 등 넓은 물류구조를 개혁하려면 무엇보다 제3자 물류(3PL) 기업 육성이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화주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니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 물류 체계를 바꾸려면 3PL 기업을 육성해 단단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몇년내 대형 3PL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3PL이란 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물류를 대신해주는 기업을 말한다. 종합물류기업인 3PL은 화주와 운송사, 창고업자를 연결해주고 통관 업무와 항공, 선적, 하역 등 물류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이다.

화주인 기업 입장에서는 3PL 기업에 물류를 의뢰하면 운송사, 창고, 통관, 항공 등의 업무를 각각 처리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별 차주는

단단계 구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제특송업체로 국내에 알려져 있는 페덱스, UPS 등이 대표적인 3PL 기업이다. 하루 320만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는 페덱스는 전세계 220개 국가에서 670여대의 항공기와 4만4천여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연 매출만 37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국내에서는 대한통운, 한진, CJ GLS, 한진 등이 대표적인 3PL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초라한 규모다.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의 지난해 매출은 1조2천억원으로 페덱스, UPS 등 글로벌 물류기업과 비교해 규모가 매우 적다.

정부는 3PL의 필요성을 깨닫고 2006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를 보완해 인증 센터를 설치하고 육성에 나섰다. 화주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적고 대기업들 역시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물류 자회사를 고집하면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화주인 삼성과 현대차, LG는 각각 삼성로지텍, 글로벌스, LG하이로스티크라는 물류 자회사를 갖고 있다.

이들 물류자회사는 자체 운송 차량이 없고 계열사 물량을 인수해 자신들과 거래하는 운송업체에 화물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챙긴다. 최근 단단계 주선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각에서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시장에서 과도한 주선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주요 화주들이 대기업들이 2PL(생산자와 판매자 사이의 물류) 체제에 머물러 있다 보니 3PL 기업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대기업들이 물류 자회사를 통한 때 보다 종합물류 회사를 이용할 때 더 싸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3PL 회사에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 광양항 타결 안돼 정상화 지연

## ■광주·전남 사업장 어떻게 돼 가나

### 삼성 광주공장·금호타이어 등 속속 타결

### 화물연대 사업장별 투쟁 전환... 불씨 여전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째인 19일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 중앙지도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사업장별로 운송료 협상 타결 소식이 들리는 등 물류운송이 정상화 되고 있다.

하지만 광양항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대형 화주들과 화물연대의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고,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서 사업장별 투쟁으로 전환할 뜻을 내비치면서, 자칫 반쪽짜리 ‘타결’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개별 사업장별 협상타결 이어져 =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1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화물연대 중앙지도부가 운송료 19% 인상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 지도부에서 전국적인 집단 운송거부 철회방향을 밝혀, 각 지부별 운송료 협상으로 투쟁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협상이 타결된 곳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지역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삼성광주공장은 이날 오후 6시께 운송하청업체인 극동컨테이너와 화물연대 광주지부 1회화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측은 광양항과 부산항을 오가는 수출용 컨테이너 차량

의 운송료를 32% 가량 올리고, 내수 운송차량의 운송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내일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전날 카고트럭의 운송료를 13% 인상하기로 합의한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여수산단 운송협의회는 이날 컨테이너 부문도 23~24% 인상을 합의했다. 광양제철소의 물류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5개 운송사는 다음달부터 유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 결정했고,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 6개 운송사도 운송료 20~30% 인상을 합의했다. 목포·제주 간 연안화물 3개 운송업체도 운송료 19% 인상을 합의하는 등 곳곳에서 협상타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물류 정상화 언제부터 이뤄지나 =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는 중앙지도부의 운송거부 철회 방침에 따라 사업장별로 협상이 타결된 지부에서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송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광주공장의 물류수송 봉쇄를 곧바로 풀어, 19일 오후부터 삼성광주공장 내에 쌓여있던 가전제품 운송이 시작됐다. 이미 타결이 마무리된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도 조합원들이 복귀하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송을 시작하고,

광양과 순천, 여수산단 등지에서 협상이 타결된 화물연대 지·분회들도 즉시 현업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수 금호타이어지회장은 “사측이 일정부분을 양보한 만큼 지역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화물연대 조합원들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사업장별 투쟁으로 전환 = 광주·전남지역 주요 화주들 가운데 협상타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업체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대우 일렉트론시스, 광양항 화주 8곳, 화물연대는 이날 운송거부 철회소식과 함께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개별 투쟁방침도 함께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에 합의했지만, 결국 사업장별로 인상을 최종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운송거부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다.

삼성광주공장의 협상타결 소식이 들리지 전까지는 화물연대의 대표 타결이 2006년 파업 때처럼 ‘삼삼’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타결 이후에는 나머지 주요사업장이 화물연대의 집중투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우 일렉트론시스의 경우 삼성광주공장의 협상 여부를 지켜보며 운송료를 인상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던 상태고, 기아차도 협상안의 기준이 됐던 화물연대 울산지부 현대 카캐리어분회의 타결 여부에 따라 금명간 협상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광양항이다. 화물연대 광양항 컨테이너분회가 파업을 풀지 않

을 경우 삼성과, 대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수출물량의 운송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원 화물연대 광주지부 컨테이너분회장은 “광양항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협상이 끝나지 않는 한 광양항으로의 수송을 재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기자 ahj@kwangju.co.kr

# “화물연대 파업 피해업체에 세정 지원”

## 한상률 국세청장

한상률 국세청장은 19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금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초도순시를 위해 대구를 방문,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

다. 그는 “수출업체 등 부가가치세 조 기환급 신고 사업자는 물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제품이 출고되지 않아 일반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이 경영 애로를 겪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 간 미뤄 경영 애로 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은 또 지방 중소기업 세정 지원 대책으로 “외형 500억원 미만인 지방의 장기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사업기간 기준으로 종전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청장은 이날 오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형 10억원 미만인 성실 납세법인의 경우 7월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 “합리적 운송료 지급, 화주들도 고통분담”

## 전경련 입장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 “대기업 화주들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합리적인 운송료 산정과 지급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물류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정병철 상근부회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파업으로 인한 화물 운송 차질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수출입 활동의 마비는 물론 해외바이어 이탈과 국가신인도 약화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화물운송업체도

조속히 운송현장에 복귀해 기업의 부품조달, 제품출하, 수출물량 선적 등 화물의 원활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높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맞고 있는 이때 개별 경제주체들이 양보와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호남 최고(39)층 명품아파트**  
구역지정 확정

입동 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주: (주)아이엘GC | 주: (주)대신건설 | ☎ 521-3082~4